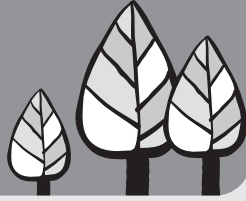


축산  
소식



한우

한우 고급육 개량연구 '새전기' 농진청 '마블링 유전자 네트워크 지도' 규명

농촌진흥청은 한우 마블링 생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100여개 유전자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도식화한 '마블링 유전자 네트워크 지도' 를 처음으로 규명해냈다.

생물정보기법으로 단백질 상호작용 정보를 활용해 마블링 생성에 영향을 주는 1,000여개의 관련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 유전자 중 100개 이상의 유전자들이 직접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이 네트워크의 주요 유전자들이 한우의 근지방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통해 최초로 검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규명한 '유전자 네트워크 지도' 뿐만 아니라, 한우 고급육 선발을 위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조절인자를 대량으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조절인자간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임다정 동물유전체과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마블링 유전자 네트워크를 이용해 고급육 생산에 영향을 주는 형질 조절 유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며 "인간의 질병 조절 유전자 발

굴에 활용되던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앞으로 축산 분야에 응용하게 된다면 경제형질 개량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노금호기자

양돈

돼지 FMD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기준 완화

농식품부 9일부터 기존 80%→60% 미만으로 조정

돼지에 대한 FMD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처분 기준이 6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당초 양돈업계에서는 항체양성률 과태료 처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과태료 처분 방침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FMD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처분 기준을 기존 8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의 경우는 백신 항체양성률이 80% 이상이고 돼지는 60~80% 수준"이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맞추기 위해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통상 FMD 백신 항체양성률이 95% 이상 나타나는 소와는 달리 돼지는 개체특이성에 의해 면역 반응이 20% 정도 감소하고, 양돈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의 영향 등으로 최대 20~30%까지 면역반응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항체양성률 80% 미만' 기준이 양돈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재 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양돈협회는 돼지에 대한 FMD 백

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항체양성률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농가 실태 조사 이후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돼지 FMD 항체양성률 기준을 낮췄는데,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나온 기준이 아니며 단순히 조금 완화된 조치”라면서 “현장 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사를 실시, 적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의 방침은 잠정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백신 항체양성률에 대한 조사는 이전부터 해 왔고, 항체양성률 기준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양계

### 닭고기 소비홍보 페스티벌, ‘2011 구구데이’ 성료 청계광장에서 실시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9일 닭고기와 계란소비 촉진을 위한 ‘2011 대한민국 구구데이’ 페스티벌을 청계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닭과 계란을 이용한 요리 전시와 함께 올해 구구데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미스코리아가 참석한 가운데 배식행사 등 다양한 홍보행사가 병행돼 진행됐다. ‘잃어버린 우리 닭문화’ 전시장, 닭 요리 공모전 수상작, 세계 각국의 닭고기 요리 23종과 계란 요리 10종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타악 퍼포먼스, 퍼니밴드 공연, 경품추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을 비롯한 각 축산관련

단체장, 강한식 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장 직무대행, 강광파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안승춘 한국식생활연구회장 등 관련단체기관과 홍보대사로 위촉된 2011년 미스코리아가 참석했다.

한편 구구데이는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라고 부르던 것에 착안하여 지난 2003년부터 매년 9월 9일에 열리고 있다.

글: 편집부

## 낙농

### 낙농산업 발전 T/F 발족

농식품부, 원유 기본가격 기준 설정·

제도개선 목적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통구조개선, 원유기본가격 기준설정, 제도개선 등 낙농분야에 산재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학계, 유통업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과제별로 원유가격 조정위원회, 유통구조개선위원회, 제도개선 위원회로 구분되며, 지난 15일 발족식이 가졌으며, 위원회별 향후 논의과제에 대한 주제를 선별했다. 위원회별 논의과제를 살펴보면 원유가격조정위원회는 원유기본가격 조정기준 및 시기, 조정방법, 올 8월 추정생산비 산출결과 검증, 향후 추정생산비 산출기준 확립 등을 실시한다.

유통구조개선위원회는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비교분석, 타 식품과의 유통비용 및 영업이익률 비교분석,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절감방안, 우유 용량 대형화 방안, 유통 및 물류의 통합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원유조달체계 다중구조의 개선, 전국 단위 쿼터관리방안, 원유가격 산정체계 및 낙농진흥회 기능과 조직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TF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낙농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EU, 한미 FTA 등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낙농 전문가들이 산업의 체질개선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산경제 한정희 기자

**양봉** 토종벌 괴질 ‘낭충봉아부패병’ 예방법 찾았다  
여왕벌 10일간 가둬 바이러스 증식 가능한 애벌레 없애

농촌진흥청은 전국의 토종벌을 집단 폐사시키며 토종벌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낭충봉아부패병’을 친환경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냈다. 토종벌 괴질로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의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태되기 전에 말라죽게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지난해와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해 토종벌의 95% 이상을 폐사시키고 있다. 이번에 찾아낸 예방법은 벌통을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교체한 뒤 일정기간 여왕벌의 산란을 중단시켜 애벌레에서 증식하는 낭충봉아부패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이다. 현재 토종벌 농가 대부분이 계단식 정사각형 모양의 재래식 벌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낭충봉아부패병 증세가 나타난 토종벌을 이 재래식 벌통에서 벌집을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현대식 개랑벌통으로

옮긴다.

그리고 벌집의 수를 조절해 일벌(약 6천마리 이상)을 밀집시켜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여왕벌을 10일간 작은 통에 가두어 산란을 중단시킨다. 그 다음 격리시켰던 여왕벌을 벌통에 다시 풀어놓으면 바이러스가 현저히 줄어든 청결한 벌집에서 재산란을 시작해 건강한 애벌레를 키울 수 있다. 이는 토종벌의 알은 3일 후에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된지 6일 후에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 이후에는 낭충봉아부패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피해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여왕벌을 10일 동안 격리해 산란을 못하게 하면 벌통 안에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애벌레가 모두 없어져 이후 생산되는 애벌레의 감염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봉군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여왕벌의 재산란 이후 부화되는 애벌레에 감염 증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양록** 양록협회, 임원 지회장 사무장 연석회의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가 지난 9월 22일 KTX대전역 회의실에서 임원 지회장 사무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양록업계의 당면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것으로 사슴결핵과 녹용특별소비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양록협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슴결핵과 녹용특별소비세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정하고 대정부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수축산신문 김동호 기자